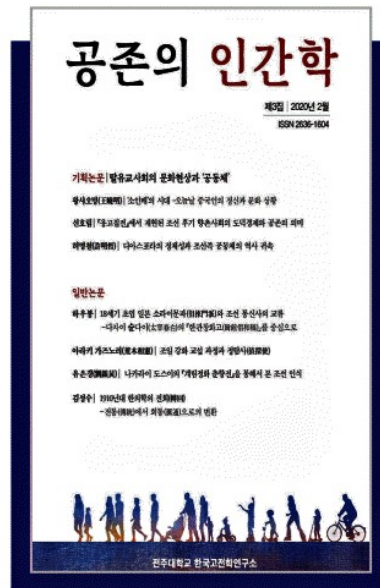


# 오늘의 주요기사

2020년 03월 16일 (월)

| 순서 | 제 목                               | 매체     | 카테고리  | 페이지 |
|----|-----------------------------------|--------|-------|-----|
| 1  | 전주대 한국고전학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 전민일보   | 문화    | 1   |
| 2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 전주매일   | 교육·문화 | 2   |
| 3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 전북금강일보 | 문화    | 3   |
| 4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 호남제일신문 | 경제·교육 | 4   |
| 5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 전주일보   | 종합    | 5   |
| 6  | 전주대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 3집 발간         | 전북연합신문 | 교육    | 6   |
| 7  | 전북 중국인 유학생 격리해제 수순                | 전민일보   | 사회    | 7   |
| 8  | 도내 주요대학 오늘 온라인 개강... 30일 등교       | 전북중앙   | 사회    | 8   |



## 전주대 한국고전학 학술지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학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희림 교수의 ‘용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아라키 가즈노리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되어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봉기자

확대비율: 100%

## 전주매일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012면 교육·문화 7.3 x 15.4c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 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 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의 한관창화고(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歴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 일본 고쿠시칸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립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전통에서 회통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장은성 기자

확대비율: 100%

## 전북금강일보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012면 문화 18.7 x 9.4cm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학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 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립 교수의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歴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

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土館)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국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돼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확대비율: 100%

호남제일신문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005면 경제·교육 19.2 x 13.0cm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한국 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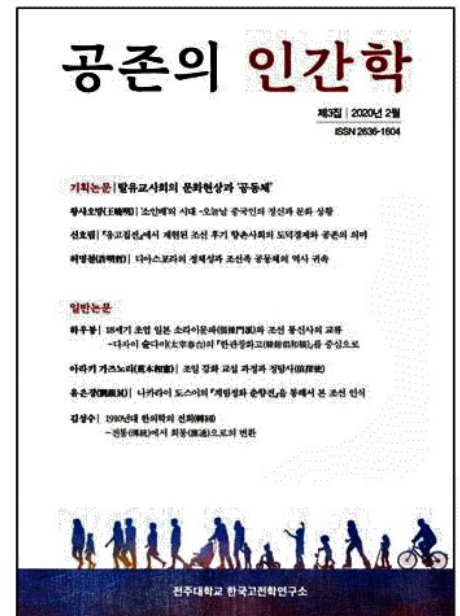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 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 문파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歴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士館)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돼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애 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일보**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004면 종합 12.9 x 11.9cm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연구단, 총7편 논문 게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

이는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은 세 번째다.

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립 교수의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가 실렸다.

또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도 수록됐다.

이와 함께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과’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의 한관창화고를 중심으로’를 비롯해 ▲일본 아라키 가즈노리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 ▲일본 고쿠시칸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전통에서 회통으로의 변환’을 한데 모았다.

/정해은 기자

확대비율: 100%

## 전북연합신문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004면 교육 11.9 x 16.2cm

### 전주대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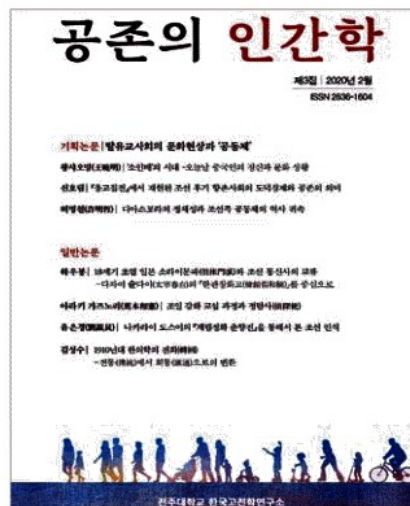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공동체 주제 논문 7편 게재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학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 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明)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



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土館)대 유은경 교수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임종근 기자 · jk063@naver.com